

# 타오르는 반미자주화의 불길

남조선에서 8.15를 앞두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배격하고 당국의 대미결핵정책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대중적인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5일 6.15남측위원회와 민주로총을 비롯한 180개의 각계층 운동단체들로 구성된 8.15인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8.15추진위원회)는 서울과 대구, 부산,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7.25법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미군철수》, 《한미실무그룹 해체》, 《미군방위비중액반대》, 《병합협정철폐》를 요구하는 비상시국대회, 평화현수막행진, 기자회견, 반미선전물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벌리면서 반미기운을 크게 고조시켰다고 한다.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연습행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전문가들은 8.15를 앞두고 강력한 반미행동전을 예고한 진보운동단체들의 투쟁이 조직적인 성격으로 띠면서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다 아느냐와 같이 미국이 《해방자》의 말을 쓰고 남조선을 장점한 때로부터 75년이 되었으나.

이 75년이란 세월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강권과 전횡, 살륙과 테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오만한 사고방식과 횡포성이 남조선에 온갖 강권과 전횡, 살륙과 테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친인공노릇 행위로 남조선에서는 전후시기부터 2004년까지만 해도 8만 3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남조선장점을 두고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주종관계, 예속관계, 굴종관계》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강요하는 방위비증액과 첨단전쟁장비구



입강요, 합동군사연습계행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것들은 미국만을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에는 민생과란과 심각한 경제적과국난을 불러올뿐이다.

오늘 남조선에 한갖 식민지예속국, 무기판매시장으로 보는 미국의 국도에 이른 멸시와 예속화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해나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과의 《동맹》을 부르짖으며 보수세당과 조급도 다름바없는 사대적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는 친미매국세력들이 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섬겨바치는 쓸개박진 것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앞으로도 줄기차게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무분별한 군사적행동이 초래할것은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이 8월로 예정되어있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잡정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속에서는 《국도로 침에 해진 조선반도정세를 통제불능의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결코 우연한 평가가 아니다. 원래 미군부가 이번 하반기연습이 쌍방향합군의 전두준비 및 실동훈련으로서 연합방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립장을 고수해 왔다면 남조선군은 전시기작통제권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에서 진행할것을 고집하였다고 한다.

한마디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단단히 틀어쥐려는 상권과 임기내에 허울뿐인 전시기작통제권이라도 넘겨받아 《치적》을 쌓으려는 하수인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강박과 상탈질인 셈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8월축소강행》에 합의한데 대해 분석가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유지에 남조선을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속심과 관련된다고 평하고있다.

그것은 오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하와이주변해상에 서 벌어지는 미국주도의 다국적연합해상군사훈련(《림팩》)에 남조선군이 참가시킴으로써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연습에 남조선군은 이 지수추출을 비롯한 2척의 함선과 2대의 해상작전잠수기, 병력 570여명으로 편성된 해군전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깊숙이 참예한다는것은 가늠이 없을만큼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것은 물론 남조선자체의 안전에도 부정적결과만을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더욱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계가 대유행전염병확산으로 아우성치고있는속에 남조선강점 미군내에서도 악성비루스감염자들이 계속 나타나 남조선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더해주고있는 형편이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7월 20일까지 루직비루스감염자가 98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추가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서 7월 23일 남조선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미국에서 들어온 미군과 가족 9명이 비루스감염자로 새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악성전염병이 날로 확산되고있는 미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기지에서 들어오는 미군이 남조선의 악성비루스감염증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온상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함에 돌 불구하고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또다시 방대한 철락무력을 끌어들이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두고 인민들의 생명안전 같은것은 애당초 안중에 두지 않는 전쟁미치광이, 반역법적집단이라고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열쳐나오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얼마전 8.15인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시국선언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중단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또한 부산민중련대를 비롯한 운동단체들도 남조선에서 시군구별행사를 감행한 미군의 만행상을 폭로하는 《미군세군반대투쟁을 위한 부산시민연대회의》를 진행하고 편집물 및 광고제작 등 다양한 형식의 반미투쟁을 벌였다. 이와 함께 부산 해운대지구에서 방역규정을 관측하게 위반한 남조선강점 미군을 검찰에 고발한것을 비롯하여 미군관악고부설침입대투쟁, 평평미군기지 토양정화비용요구투쟁과 같은 실력행사에도 적극 나서고있다고 한다.

현실은 범죄적인 합동군사연습에 매여달릴수록 남조선 각계층의 더 큰 항의와 규탄만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철명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6.25전쟁 70주년 유엔군참전의 날 기념식》이라는 광대극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 조진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매진 의 손맛을 보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산송장들을 비롯하여 어중이떠중이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속에서 남조선 국방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조각 70년을 계기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에게 《축하사신》을 보내면서 낮간지러운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것이 수십년전 북침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적정체와 수치스러운 참패상을 망각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반공화국적대감을 적극 고취하여 이 땅에 침략전쟁의 참극을 재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참패의 역사를 가리울수 없다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다. 반대로 공화국을 알보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력사가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도발자들에게는 돌이켜보게조차 끔찍한 수치의 날로 되었다.

그런데 해피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키는 놀음을 벌였으니 낮가죽이 두리온자

들이 아닐수 없다. 그런다고 해서 력사의 진실이 달라질수야 있겠는가.

력사의 패배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해마다 이런 광대극을 반복하는것이야말로 제 낮짝에 흙담칠하는 못난 이들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의 군부가 이미 없애졌어야 할맹전의 유물을 아직까지 싸고들며 《평화》의 보자기로 분칠하고있는것은 언제까지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기어올라 부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6.25 뒤에는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로 되는 7.27이 있다. 력사의 법칙적인 진로를 무시하고 또다시 최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려하는것은 스스로 자멸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본사기자 안복순

## 변함없는 동족대결야망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반공화국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군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특공 3사단의 쌍방훈련,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의 공격편대군훈련, 지상 및 공중비상대기 합동차단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기동, 사격, 략화, 도하, 반화환, 반격, 도하 등 중화된 각종 단종훈련들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훈련들에 대해 《년례적》이며 《통상적》이라는 명목을 내세우고있지만 그의 침략적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이 시각도 남조선군부는 외세의와 합동군사연습강행

을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위한 각종 첨단무기개발과 반일책동에 미쳐달리고있다.

얼마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라는데서 2020년 하반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8월 중순에 진행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한편 《북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으로부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반입하였으며 이른바 《북반항공망을 뚫을수 있는 전자전기 도입》을 다그치는 등 첨단무기개발과 반일책동에 미쳐달리고있다.

《COVID-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남조선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적혼란이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때에조차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장연습을장난과 첨단무기개발에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로 빨아들이는 자금을 거둬집없이 탕진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최근 남조선당국이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기도를 더욱 포괄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올해의 《국방예산》이 《력대 최대》라는데 대해서와 《고체연료로 리용한 우주발사체》로 저케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는데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앞에서는 《대화》타령을 하고 뒤에 돌아와서는 공화국과 대결할 목적으로 군사력증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배신적행위를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내외여론은 북남관계가 악화국면에 처하고 군사적긴장이 조성되고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남조선당국은 첨단군사장비개발을 공공연히 떠벌어대면서 상서롭지 못한 행위들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얼굴

## 상서롭지 못한 행위의

에 화색을 띠우고 북남관계 개선을 떠벌어대온것이 한갓 허풍의 소리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체재이후 첨단전쟁장비반입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행동에 계속 매달려온 배신행위만으로도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엔커녕 버젓이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보수 《정권》때와 무엇이 다른가.

상대방의 자제력을 오판하면서 경거망동하고있는 남측을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가 높고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우리 민족의 뉘를 빼앗으려는 범죄적인 노예교육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수십년동안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미쳐달리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황국신민화》를 노린 식민지노예교육이다. 《황국신민화》란 조선사람을 일본인화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사람들을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만들어 침략정체실현에 최대한 리용하려는 범죄적목적이 깔려있었다.

이로써 일제는 조선에서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류례없이 악독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시기 조선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민족교육운동이 벌어졌다.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운동은 점차 활기를 띠었으며 사립학교의 수는 수없이 늘어났다.

여기에서는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민족풍습과 일반상식도 가르쳐주었으며 애국주의교양도 하였다.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기기부터 민족교육을 강고히 말살하기 위해 미쳐달리었다.

일제는 1908년 이른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결과 1910년에 이르러 조선에서 사립학교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일제는 1911년 조선에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이른바 《근본방향》이라고 하는 《조선교육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학교에서 조선말과 글대신 일본어를 국어로 하여 가르치도록 강요하였다.

1931년 10월 왜왕은 문부대신 다나카에게 내린 칙령에서 조선에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강화와 《전진한 국민양성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것 등 이른바 《황국신민화》를 다그칠때 대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 교육기관들이 일본의 교육제도처럼 개편되고 학생들에게 《일본정신》을 배양시키기 위한 수업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학생들은 수업전에 왜왕의 《교육칙어》를 따라외어야

했다 일본법에 순종하고 왜왕을 숭배해야 한다는 집요한 설교를 들어야 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 《공성요배》를 할것을 강요당하였다. 《공성요배》란 왜왕이 있는 《공성》을 향해 절을 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 일제는 《아마 데라스오미카미》라는 저들의 이른바 《조상신》따위를 두어두는 《신사》를 전국각지에 세워놓고 거기에 참배할것을 강요하였으며 《황국신민서사》를 무조건 외울것을 강요함으로써 요구하였다.

한편 매일 정오에는 침략전쟁마당에서 개죽음을 당한 일제침략군인 《명복》과 침략전쟁의 《성과》를 비는 《묵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질서에 응하지 않는 조선사람들에게는 《부정선인》이라는 황당한 딱지를 붙여 감시하고 박해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민족의식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 식일제 조선의 력사와 현실에 대한 교육도 엄금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애국적인사들이 쓴 《초등본국력사지리》, 《중등본국력사지리》 등 지리교과서용도서로서 사립학교들과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던 책들을 모조리 압수하여 불태워버렸으며 일제 수취시기에 조선의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동국사략》, 《대한력사》를 비롯한 력사책들과 《을지문덕전》 등 조선의 애국명장들의 전기들도 모조리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에게 머리단장과 옷차림도 일본식으로 할것을 강요하였다.

머리형태도 일본식으로 단발하라. 옷색갈도 일본식으로 검은색을 택하라. 신발도 일본의 《제다찌》를 신으라고 강박하였다.

일제는 경찰을 비롯한 폭압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치마치고리물 입고다니는 조선녀성들에게 달려들어 가위로 옷을 채고 벗기는 추악한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선사람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를 실현하기 위해 악독하게 책동한 일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천천천원수, 인류문명의 흉악한 파괴자였다.

본사기자 주광일

로온 투쟁을 모독하고 친일굴종의 추태를 부리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침략자들과 함께 파문어야 제격이라고 주장하던 친일매국노를 《정강정책》이라는 면사포도 뒤집어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강정책》의 면사포에 매달아놓는 각종 《장식품》들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것도 그렇듯이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과 《3.1독립운동정신의 계승》을 저들의 면사포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달아놓은것이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사상 처음으로 정강정책초안에 4.19인민봉기, 부마항쟁, 5.18광주인민봉기, 6월일민항쟁 등을 리용한다. 《정강정책》이라는 면사포도 뒤집어쓰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강정책》의 면사포에 매달아놓는 각종 《장식품》들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그것도 그렇듯이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과 《3.1독립운동정신의 계승》을 저들의 면사포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달아놓은것이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사상 처음으로 정강정책초안에 4.19인민봉기, 부마항쟁, 5.18광주인민봉기, 6월일민항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투쟁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새롭게 규정하여나갔다는 표현도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3.1독립운동정신》이 이번

## 면사포나 쓴다고 더러운 몸통이 가리워지랴

면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들이 다. 그런즉 《미래통합당》이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새롭게 규정하여나갔다는 표현도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3.1독립운동정신》이 이번

개피리 삼년 가도 황모 못 된다고 《미래통합당》의 사대매국적이며 파쇼적인 체질은 달라질래야 달라질수가 없다. 이런 《미래통합당》이 《정통보수야당》의 체면마저 추패시키고 해피한 광대극까지 벌여놓을것을 보면 남조선인민들의 중요와 배격을 받아 얼마나 바빠맞아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는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성장잠지기, 경제민주화추진 등 어울리지 않는 타령을 《정강정책》초안에 쏘아박은것도

사람발림의 눈속임수이다. 친제법정책과 반인민적양으로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잠근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죄악상은 모두 당방우에 올려놓고 저들이 마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족을 부리고있으니 얼마나 낮가죽 두꺼운 《미래통합당》인가.

《미래통합당》이 변할수 없는 반역정당임은 이번 《정강정책》초안에 《자유민주주의의적본질》에 립각한 평화통일을 떠들며 《흡수통일》야망을 그대로 드러놓은에서 다시금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번 《정강정책》의 《정당성》을 떠들면서 저들의 재집권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호박이 푸른 줄을 친다고 하여 수박이 되는것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울긋불긋한 체면거러로 장식한 면사포를 뒤집어쓰고 민심의 눈길을 끌기보려고 하지않는 몸통이어서 나는 독재의 퍼비린내와 부정부패의 악취는 도저히 감출수가 없다.

본사기자 안권일